

글로벌 K-POP 그룹 방탄소년단, UN총회 연설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락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의 새로운 청소년 어젠다인 '제네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당당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정기총회에서 연설하며 위상을 더욱 높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락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의 청년 어젠다 '제네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발표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다. 멤버 전원이 연단에 올랐다. 리더 RM(24)이 대표로 연설했다. 약 7분간 영어로 한 연설에서 RM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자 방탄소년단 리더로서 개인적 경험을 담아 젊은 세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했다. RM은 “열 살쯤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끼워 맞추며 내 목소리를 잃어갔다”며 “음악이라는 안식처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이 된 뒤에도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다. 때로는 포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네레이션 언리미티드서 젊은 세대에 격려의 메시지 리더 RM “국가·인종·성 정체성 등 상관없이 이름·목소리 찾기 바라”

기하고도 싶었다”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아봤다. 그는 “앨범 수백만 장이 팔리고, 스타 디움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가 됐으나 나는 여전히 스톱네 살 평범한 청년이다. 곁에 있는 멤버들과 팬의 사랑과 성원이 있기에 이런 성공이 가능했다”면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시리즈 앨범을 발매하고, (러브 마이셀

프)캠페인을 시작한 뒤, 전 세계 팬으로부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RM은 “전 세계 젊은 세대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나를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자(Speak yourself)”면서 “국가, 인종, 성 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나는 방탄소년단의 RM, 김남준이다. 한국의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다. 다른 사람처럼 실수도 하고 흠도 많지만, 이제 나 자신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조금씩 사랑해보려 한다”고 천명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제네레이션 언리미티드’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 유스 2030 전략(UN Youth 2030 Strategy)’의 한 축이다.

10~24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투자와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마련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올해 제73차 유엔정기총회에서 유엔과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이 자리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를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행사 참석 전 방탄소년단과 만나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축하하고, 멤버들을 격려했다.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아동과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ENDviolence)를 후원하고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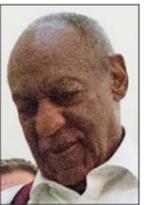


영화 ‘安市城’, 개봉 8일째 300만 돌파 ‘명당’ 142만명, ‘협상’은 110만명 기록

사극 영화 ‘安市城’이 추석 극장가를 점령했다. 배급사 NEW에 따르면, 19일 개봉한 ‘安市城’은 개봉 8일째인 26일 새벽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전날 밤까지 누적 관객 289만1543명이었다. ‘安市城’은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신과함께-인파연’에 이어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추석 연휴 시즌 개봉한 영화로는 유일하게 1000만을 넘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가 개봉 11일 만에 300만 관객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파죽지세다. ‘安市城’은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평가받는 645년 고구려와 당의 88일 전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사극이다. 제작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배우 조인성(37)·남주혁(24)·박성웅(45)·배성우(46)·엄태구(35)·박병은(41)·오대환(39)·그룹 ‘AOA’ 멤버 설현(23)·정은채(32) 등이 출연했다. ‘내 고향 같은 애인’(2010) ‘짜라시: 위험한 소문’(2014) 등을 연출한 김광식(46)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安市城’은 이번 추석 시즌에 ‘명당’, ‘협상’과 맞붙었다. 전일까지 ‘명당’은 누적 관객 142만명, ‘협상’은 11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실형’ 코스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엔 남아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사진)가 25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장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Walk of Fame)에 있는 ‘코스비 별(스타)’는 철거되지 않는다. CBS와 폭스TV 등 미국 방송들은 이날 할리우드의 코스비 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할리우드 상공회의소의 방침을 일제히 보도했다. 명예의 거리를 관장하는 할리우드 상공회의소는 CBS 로스앤젤레스에 보낸 성명서에서 “명예의 거리에 설치된 별은 오로지 해당 인물의 프로페셔널 업적만을 영구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에 별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상공회의소는 코스비의 명성이 크게 퇴색된 점을 인정하면서 “코스비의 개인적 삶이 대중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